

무주~서울 직통버스 운행 시간 변경

22일부터 서울행 8시 첫차·오후 4시 무주행 신규 단독노선 등

무주~서울 직통버스 운행 시간이 오는 8월 22일부터 변경되어 운행 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무주-서울 간 1일 생활권이 드디어 가능해졌다.

지난 4월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 제269회 임시회에서 이해양위원의 무주~서울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촉구 5분 발언을 시작으로, 6월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와 관련된 건의문을 만장일치 채택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무주군(군수 황인홍)과 함께 군민서명운동(5983명)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친 지 3개월만의 성과이다.

당초 국토교통부 조정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국토교통부 주재 전북여객과 금남고속 간 진통 끝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 시간표에 따르면 서울행 첫차가 8시, 무주행 막차는 오후 6시로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행 8시 첫차와 오후 4시 무주행 직통버스를 무주 단독노선(구천동, 설천)으로 신규 추가하고 배차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무주행 막차(안



무주~서울 직통버스 운행 시간이 오는 8월 22일부터 변경되어 운행 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무주-서울 간 1일 생활권이 드디어 가능해졌다.

성, 장수)가 오후 6시로 운행된다. 이는 무주군민 뿐만 아니라 장수 군민도 서울 1일 생활권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이해양 의원은 "이렇게 흡족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군민과 출향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무주군의회의와

무주군, 무주군민과 지역언론이 한 마음으로 움직인 결과이며, 관련부처와 안호영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현명한 협치와 군민 행복을 위한 생활정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28회 무주군 부남면 강변축제 성료

곽병열 씨 등 3명 군수표창

제28회 부남면민의 날 강변축제(이하 강변축제)가 지난 3일 무주군 부남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부남면(면장 최학돈)이 주최하고 부남면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부남디딤방아 액막이 놀이 시연을 시작으로 민요와 색소폰 공연으로 흥을 돋운 강변축제는 기념식과 민속경기, 민민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황인홍 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 안호영 국회의원, 황의탁 도의원을 비롯한 부남면 지매결연 지역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등 내빈들이 함께 했으며 곽병열 씨(61, 상평마을)와 장정애 씨(52, 가정마을), 유상근 씨(59, 식안마을)가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표창을, 이재민 씨(61, 도소마을)와 응우예티오역(28, 유평마을)가 면장 표창을, 배종선 씨(88, 유동마을)와 김일권 씨(66, 대곡마을), 구현수 씨(71, 상대곡마을)가

국회의원상을, 무주군청 재무과 최원희 과장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레프팅과 버릇길, 잠두길, 부남디딤방아 액막이 놀이로 차곡차곡 명성을 쌓아 가고 있는 부남은 누가 뭐래도 무주의 자람"이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깨끗한 금강,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지키고 디딤방아 액막이 놀이를 계승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부남면 지역발전협의회 김운섭 회장은 "강변축제는 아름다운 금강을 배경으로 부남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라며 "여름이 되면 강변축제가 생각나고, 디딤방아액막이 놀이를 보면 부남이 생각나실 수 있도록 잘 지켜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부남면은 금강과 마실길, 버릇길 등을 기반으로 레프팅과 트레킹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사과와 고추, 인삼과 갯잎을 주로 생산하며 디딤방아액막이 놀이를 통해 마을 자원의 우수성과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 아리

진안,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

진안군은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일 장애인가구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편의시설을 지원하고자 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있는 자활기억 '우리건강 인테리어' 관계자와 함께 6개 읍·면의 수요대상자 12가구를 현장 방문했다.

그 결과 총 4가구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원이 가능한 8가구는 우선 사업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배정양인 3가구는 읍·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대상 수선유지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선제적 농업재해 대책 추진

상황실 설치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

진안군은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농업 피해 예방 최소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여름은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높아 폭염을 동반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된다는 기상청 발표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여름철 재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재해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이 설치됨에 따라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체제로 전환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재해 사전예방 활동과 응급복구 및 신속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농가를 대상으로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관리요령과 가족사육·시설 관리지도, 폭염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등 홍보와 지도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총 보험금의 95%를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최대한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은 "농작물 관리요령과 예방 대책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재해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휴가철 물가안정캠페인 전개

장수군은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2일 방화동 자연휴양림에서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장수군지부가 참여하여 휴양림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수 가격표시제 및 착한가격연구소 이용, 행사지 부당요금신고센터 운영,

장수사랑상품권 이용 등을 홍보했다.

군은 이달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행사지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물가합동점검 등을 통해 물가를 집중 관리하여 다시 찾고 싶은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길재 일자리경제실장은 "휴가철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지역 관광명소의 이미지가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물가 안정 및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다가오는 추석명절과 제13회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맞아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장수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상품권 구매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마령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송재홍·정상원·신영진·최영대 씨 4명

진안군 마령면(면장 정상화)은 최근 면민의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54회 마령면민의 장 수상자로 문화체육장 송재홍(69), 산업장 정상원(70), 공익장 신영진(72), 애향장 최영대(66)씨 4명을 각각 확정했다.

문화체육장 송재홍씨는 1990년 제1회 전북도민 생활체육대회 경보 경기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현재까지 마령면 민속경기 대표 선수로 활동하면서 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마령면 종합우승에 기여했다.

또한 각종 도 단위 체육대회(고리걸기, 한궁)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북도민체육대회 10여년간 출전하여 8년간 우승을 차지하는 등 마령면 체육 발전에 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산업장 정상원씨는 마이산골정보마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호박고구마를 육성하고, 수박공선회마령회장을 맡아 수박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마이산 심미원 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농산물 가공을 통

한 수익을 창출하는 등 지역농업 발전에 선두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장 신영진씨는 1982년 마령면 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래 백운, 성수면 등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한 참 봉사를 실천하였으며, 퇴직 후에는 체육회 총무, 주민자치위원장, 이산묘사무국장, 게이트볼회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면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애향장 최영대씨는 제13대 재전마령면 향우회장을 맡아 향우회의 조직 강화를 통한 정기적인 모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마령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부회장을 맡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마령면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화합을 이끌고 있다.

면민의장 시상식은 오는 8월 15일 마령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제54회 마령면의 날 화합행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무인헬기 벼 병해충 방제

무주군은 8월 중순까지 벼 병해충 예방을 위한 무인헬기 공동방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과 6월 무풍면과 적상면, 안성면 등 3개 면을 중심으로 367농가에서 263ha 1,451필지에 대한 방제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 22일 방제를 시작해 생육기에 따라 총 2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강명관 친환경농업 팀장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벼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흑명나방 등의 벼 병해충을 막고 부족한 농촌일손도 거든다는 취지에서 무인헬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를 실시"라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쌀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산약제로 인한 주변 작물과 양봉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 등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